

기억의 터

# 기억의 터 작품 공모

2024. 0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Table of Contents

---

## I. 공모개요

1. 공모 목적
2. 공모 개요
3. 작품 접수 및 질의 응답
4. 공모 세부 일정
5. 공모 주최 및 운영 관리

## II. 공모 세부지침

1. 작품 공모 주제
2. 작품계획 지침

## III. 응모작품 제출 도서

## IV. 작가 및 작품 선정

1. 심사 방법

## V. 수상

1. 당선자의 권한
2. 보상금 지급방법
3. 저작권 및 출판 전시
4. 분쟁
5. 그 밖의 유의사항

**붙임 1 : 대상지 소개**

**붙임 2 : 도면 및 자료**

# I. 공모 개요

---

## 1. 공모 목적

- '기억의 터' 작품 공모

- '기억의 터'는 반인륜적 전쟁범죄 피해자였지만 당당히 평화/인권 활동가로 활약하신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계승하자는 다짐으로, 사회단체, 정계, 여성계, 학계, 문화계,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모여 '기억의 터' 조성 국민 모금을 시작했고 19,754 명의 참여로 목표액이 달성되어 2016 년 서울시의 협조로 '기억의 터'를 열었다.
- '기억의 터'는 2016 년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외치신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할머니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정의와 평화가 깃들도록 하는 배움의 장이자 사색의 터가 되기를 희망하며 처음 조성되었다.
- 본 작품 공모는 기억의 터 공간을 재조성하여 예술을 통해 장소적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 의식을 고취하여 인권 보호와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곳의 역사적, 장소적, 인문학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조형, 건축, 조경이 복합된 작품을 구현하여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예술적 체험을 선사한다.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독창적인 작품을 실현함으로써 공간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치유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장소성을 만듦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의미 있는 사색의 시간을 제공한다.

## 2. 공모 개요

- 공모명 : '기억의 터' 작품 공모

- 공모 대상지

- 서울시 중구 예장동 2-1 번지, 남산공원 통감관저터
- 규모 : 1,202.10 m<sup>2</sup>

- 공모 과제

- 공모세부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부합한 기억의 터 공간을 활용한 작품을 제안 및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도안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한다.
- 미술, 건축, 디자인, 미디어 등 장르 불문 작품 기획 가능하며, 작품의 소재, 구조, 제작 방식 등의 기본 설계 방식에 대해 제안한다.
- 공모 대상지 내 기존 시설물은 활용 및 위치 조정이 가능하다.
- ※ 공모 과제 필수 요건은 세부 지침 참고. 대상지 정보는 붙임 참고

-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미술, 디자인, 건축, 미디어, 조경 분야 등 관련분야 전공자(학부 이상)로서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건축 등 야외 환경에 설치되는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 미술, 디자인, 건축, 미디어, 조경 등 분야별 협업 형태의 팀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다.
  - ※ 팀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자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면 됨
  
- **선정작 작품비**
  - 최종 선정작 아티스트피(당선작) : 금 20,000,000 원 (이천만원)
  - 2차 면접심사 대상자(팀) 사례비 : 각 금 1,000,000 원 (일백만원)
  - ※ 최종 작품 심사 대상인 3작품 중 미당선작 2인에게 제안 사례비를 지급
  - 제작/설치 예산 : 금 185,000,000 원 (일억팔천오백만원)
  - ※ 작품 구현 시 소요되는 기술 자문료, 구조 검토, 실시설계, 환경 조성, 제작/설치, 부대비 등 설치 완료 시 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3. 작품 접수 및 질의 응답

- **작품접수**
  - 일시 : 2024년 4월 15일(월) ~ 6월 17일(월) / 접수 마감 6월 17일(월) 24:00
  - 접수 방법 : E-mail 접수
  - 공모운영사무국 (이메일: thesiteofmemory1@gmail.com)
  - 당선작 발표 : 공모 공식 홈페이지 및 서울시 고시 공고, 작가 개별 통보
  - ※ 미당선작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회신 및 질의 응답 방법**
  - 공식 질의 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6월 17일(월) 24:00 까지
  - 참여 작가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며 질의자 성명, E-mail 주소 기재
  - 문의 : 공모운영사무국 (이메일: thesiteofmemory1@gmail.com)

### 4. 공모 세부 일정

- **작품공모**
  - 4월 15일(월) : 공모홈페이지 오픈 및 공모 정보 제공
  - 4월 15일(월) ~ 6월 17일(월) : 공모 기간

- **작품 심사**
    - 6월 24일(월) : 1차 심사, 우수작 3점 선정
    - 6월 28일(금) : 우수작 기술검토, 유사성 검토
    - 6월 28일(금) ~ 7월 5일(금) : 우수작 시민 의견 수렴
    - 7월 17일(수) : 2차 최종 심사 (PT 심사)
    - 7월 19일(금) : 당선작 발표
- ※ 공모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 8월 중 : 당선 작품 구현에 대한 최종 심의 및 의결

- **작품 제작 설치**
  - 9월 ~ 11월 말까지

<b>작품 공모</b>	<b>1차 심사</b>	<b>기술 검토</b>
4월 15일(월) ~ 6월 17일(월)	6월 24일(월)	6월 28일(금)
<b>시민 의견 수렴</b>	<b>2차 최종 심사</b>	<b>당선작 발표</b>
6월 28일(금) ~ 7월 5일(금)	7월 17일(수)	7월 19일(금)

## 5. 공모 주최 및 운영 관리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시행사 : 디올림(주)
- 공모 관련 문의

전화 : 02-2231-7205 (월-금 9:30-18:00, 공휴일 휴무)

이메일: [thesiteofmemory1@gmail.com](mailto:thesiteofmemory1@gmail.com)

공모 공식홈페이지 : <https://thesiteofmemory.com>

※ 공모에 관한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 공모 공식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II. 공모 세부지침

---

### 1. 작품 공모 주제

#### 기억의 터 - 같이 걸음

“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같이 걸음의 시작”

2016년 조성된 기억의 터를 다시 재건하는 본 공모는 비워진 공간을 예술로 다시 채우며 기존 장소적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데 목적을 둔다. 공모 주제 “같이 걸음”은 예술의 상징성과 치유의 힘을 통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연대 의식을 고취하여 세계 인권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하나 된 발걸음을 만드는 공간을 구성하고, 각각의 걸음이 모여 집단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자취의 시작이 되고자 한다. 기억의 터를 한바퀴 도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시간을 가지며 공동의 기억을 형성하고 연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 배움, 추모, 공감, 그리고 인권과 평화 가 널리 퍼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하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세계 인권 평화를 위한 장소로 조성된다.

### 2. 작품계획 지침

- **신작을 기준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단, 기획에 적합하게 응용가능한 작품이 있을 경우, 적용 가능성과 설치 환경을 고려한 발전안으로 제시한다.

- **작품 구성 요소**

**[배움의 공간]**

- 위안부 관련 기록과 역사적 사실, 인권운동가로서 활동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업적을 배우고 기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여 배움을 통해 이해와 성찰의 시간 제공을 한다.

**[추모의 공간]**

- 조용한 방문과 묵상을 위한 공간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추모하는 사유적 공간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작품을 제안한다.

**[공감과 연대]**

-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고 치유 할 수 있는, 진정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예술적 공

간을 구성한다. 사람들이 모이고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인권평화의 확산]

- 콩고, 우간다, 베트남 등의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을 지원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행보와 같이 국제 인권 평화 증진에 함께하는 메시지를 담는다.
- 과거를 돌아보고 진정한 인류의 평화를 향한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다.

#### ● 공간/동선 계획

- 대상지가 공공장소임을 인식하며 기억의 터 공간 전반을 활용한 작품을 기획한다.
- 주변 환경 및 공간 구조,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진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 공간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고려한 방법적 제안을 포함한다. 목상을 위한 조용한 공간이자 만남과 휴식의 공간적 기능을 고려한다.
- 기존 기억의 터에 남아 있는 조형물(기억의 터를 만든 사람들 명판, 거꾸로 세운 동상, 통감관저 터 비석)은 유지하되 위치 변경은 가능하다.
- 기존 기억의 터에 위치했던 콘텐츠(건립취지문, 할머니 증언, 위안부 명단, 끌려가는 소녀, 윤석남 작가의 그림)는 공간 내 다시 제시 가능하다. 단, 콘텐츠 내용은 추후 변경 또는 축약될 수 있다. ※ 자료 붙임 2 참고

#### ● 구조분야

- 최종 작품 심사 대상작에 한하여 기술검토를 진행하여 실행가능성을 평가에 반영 할 것이며 최종 선정작에 한하여 구조 검토를 진행한다.
- 영구 설치되는 작품 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날씨 변화에 따른 변형이 적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 ● 기계/전기/소방/통신 설비 분야

- 작품에 대한 설비는 운영과 유지관리 및 보수가 원활해야 한다.
- 전기, 소방, 정보통신설비 공사에 적용되는 관련법규/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 ● 제작/설치

- 빠른 현장 대응을 위하여 국내 생산,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본 사업의 시행사의 주관으로 당선 아티스트와 협업하여 추진한다.
- 당선된 작품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 설계, 제작,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사에서 부담한다.
- 당선된 작품의 완성도 높은 구현을 위해 본 사업의 시행사와 당선작가는 작품의 설계, 제작, 설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당선된 작품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 및 안전규정, 가이드라인 적용, 각종 심의를 통해 아이디어의 수정, 변경 등의 요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당선작가와 시행사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III. 응모작품 제출도서

---

- 제출물
  - 참가신청서 / 참가자약력 / 공모참가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서식 1호~4호)
    - ※ 참가자 약력에 미술, 건축, 조경, 환경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학부 이상) 1회 이상 야외 환경에 설치 프로젝트 참여 또는 기획 경험이 있는 전문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사업수행실적증명서, 전시확인증명서, 보도자료, 기타 공식 출판물, 사진 등)를 포함한다.
  - 작품기획안 제안서 (자유서식이며 기본설계안을 포함함)
  
- 작품기획안 제안서 규격
  - PDF 파일 / A4 (가로) 20매 내외
  - 언어/규격 : 한국어 / 미터법 표기
  
- 작품기획안 내 필수 포함 내용
  - 1) 작품 기획 배경 : 기획 방향 및 주제, 작품 설명, 시민 활용 방안
  - 2) 기본 설계 방향 :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소재, 구조, 제작방식 등 기본 설계 방안
  - 3) 설치 예상 도안 : 공모 세부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부합한 프로젝트(작품)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평면계획 및 조형계획, 공간계획 (평면도, 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 4) 소요 예산
  
- 서식 및 공모요강 다운로드
  - 공모 공식홈페이지 : <https://thesiteofmemory.com>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thesiteofmemory1@gmail.com](mailto:thesiteofmemory1@gmail.com)



## IV. 작가 및 작품 선정

---

### 1. 심사 방법

- 1차 심사
  - 기획안 서면 심사 및 집합심사 후 우수작 3점 선정
  - 1차 작품 심사위원회는 총 7인의 심사위원과 1인의 예비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1차 작품 심사위원회는 예술, 건축, 환경디자인, 조경 분야별 전문가 및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서울시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 심사기준 : 독창성(30), 공공예술성(30), 실현가능성(20), 유지보수용이성(10), 협업가능성(10)
  
- 2차 최종 작품 심사
  - 1차 심사 통과 우수작 3점 대상으로 제안 발표 심사
  - 2차 작품 심사위원회는 총 7인의 심사위원과 1인의 예비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2차 작품 심사위원회는 예술, 건축, 환경디자인, 조경 분야별 전문가 및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서울시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 ※ 1차 작품선정위원회와 중복참여 불가
  - 심사기준 : 독창성(30), 공공예술성(20), 실현가능성(20), 유지보수용이성(10), 협업가능성(10), 시민선호도(10)
    - ※ 사전검토서류: 기술검토서 유사성검토서, 시민의견 검토서, 작품기획안, 설명영상
    - ※ 우수작 3점 관해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 V. 수상

---

### 1. 당선자의 권한

- 1 등 당선자는 우선협상권을 가지며 최종 당선작은 구현된다.

### 2. 보상금 지급방법

- 당선작가에게는 아티스트피 금 20 백만원이 지급된다.
- 3 점의 우수작 중 미당선정작 2 점에 대한 제안 보상금 지급 시점은 당선 확정일 이후 30 일 이내로 한다.
- 당선작 아티스트피는 당선 확정일 이후 30 일 이내 50%를 지급하며, 작품 준공 완료 시점 30 일 이내에 50%를 지급한다.
- 공동 응모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 보상금에는 세금 및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 1 등 당선자가 우선협상권을 포기하거나 우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한다.
-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 순위 입상자는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반환된 보상금을 1 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 당선 후 타인의 저작권 침해, 표절 등 기타 분쟁에 대해 당선이 취소될 경우 수령한 보상금 전액을 반환한다.

### 3. 저작권 및 출판 전시

- 응모 작품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수상이 취소된다.
- 제출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다. 당선작의 경우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주최자에게 부여한다. 저작권 및 사용에 관해 당선자와 별도로 약정한다.
- 주최자는 당선작에 대해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 사업(아카이빙, 저작물의 복제, 전지, 배포, 2 차적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분쟁

- 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되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소재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 5. 그 밖의 유의사항

- 작품의 생애주기 : 영구설치
- 작품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야외 환경에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가능한 작품 제안 필수

■ 대상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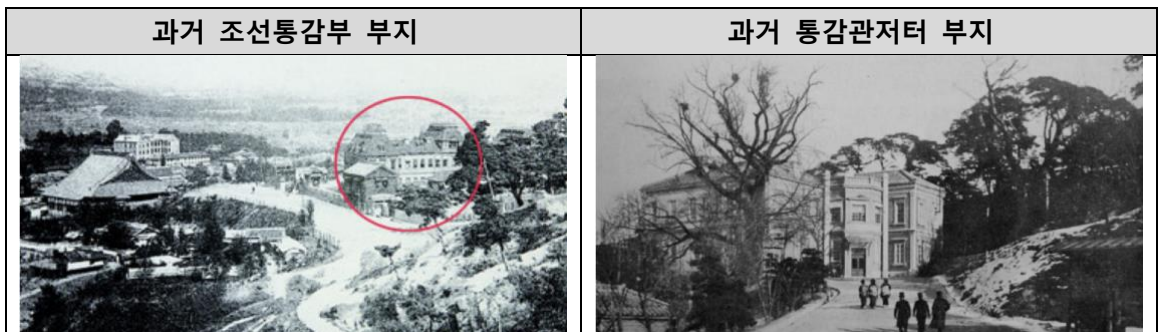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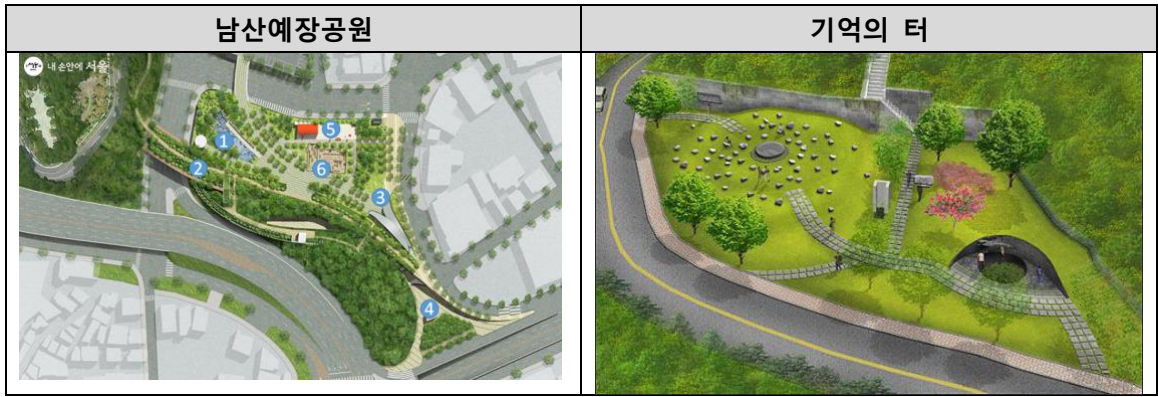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2-1 번지 남산공원 통감관저 터
- 면적 : 74,411 m<sup>2</sup>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담당, 중부공원여가센터 관리

■ 대상지 역사

● 일제 강점기 주요 식민통치시설이 자리한 곳

서울의 중심지인 남산은 과거 일제 강점기에 수난을 겪은 장소로, 조선통감부와 통감관저가 위치했던 식민 치하의 중심지였다. 현재는 남산 자락에 있던 조선통감부 부지와 기억의 터에 위치했던 통감관저터 부지가 각각 남산예장공원과 기억의 터로 조성되어, 역사를 기억하고자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 2016 년 기억의 터 개장

사회단체, 노동조합, 정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모여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의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계상하고자 기억의 터 조성 국민모금을 시작, 2016 년 8 월 29 일, '기억의 터'를 개장하였다.





- 2023년 9월 작품 2점 철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로 인하여 2023년 9월, 작품 2점을 철거되었고, 해당 작품을 제외, 기 조성된 기억의 터는 유지되어 있다.



● 현재 현황



- ① ~ ③ : 유지(이동은 가능)
  - ④, ⑤ : 철거 가능
  - ⑥(건립취지문, 할머니 증언, 위안부 명단), ⑦(끌려가는 소녀) : 반드시 작품 내 콘텐츠로 제시
  - ⑧(윤석남 작가의 그림) : 작품 내 콘텐츠로 제시 가능
- ※ 자료 붙임 2 참고

■ 대상지 주변 현황

- 대상지 주변에 남산예장공원이 위치해 있어,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자 시민의 쉼터로 기능하고 있다. 공원 지하에는 녹색순환버스 환승센터와 대형버스 주차장, 그리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을 기념하는 공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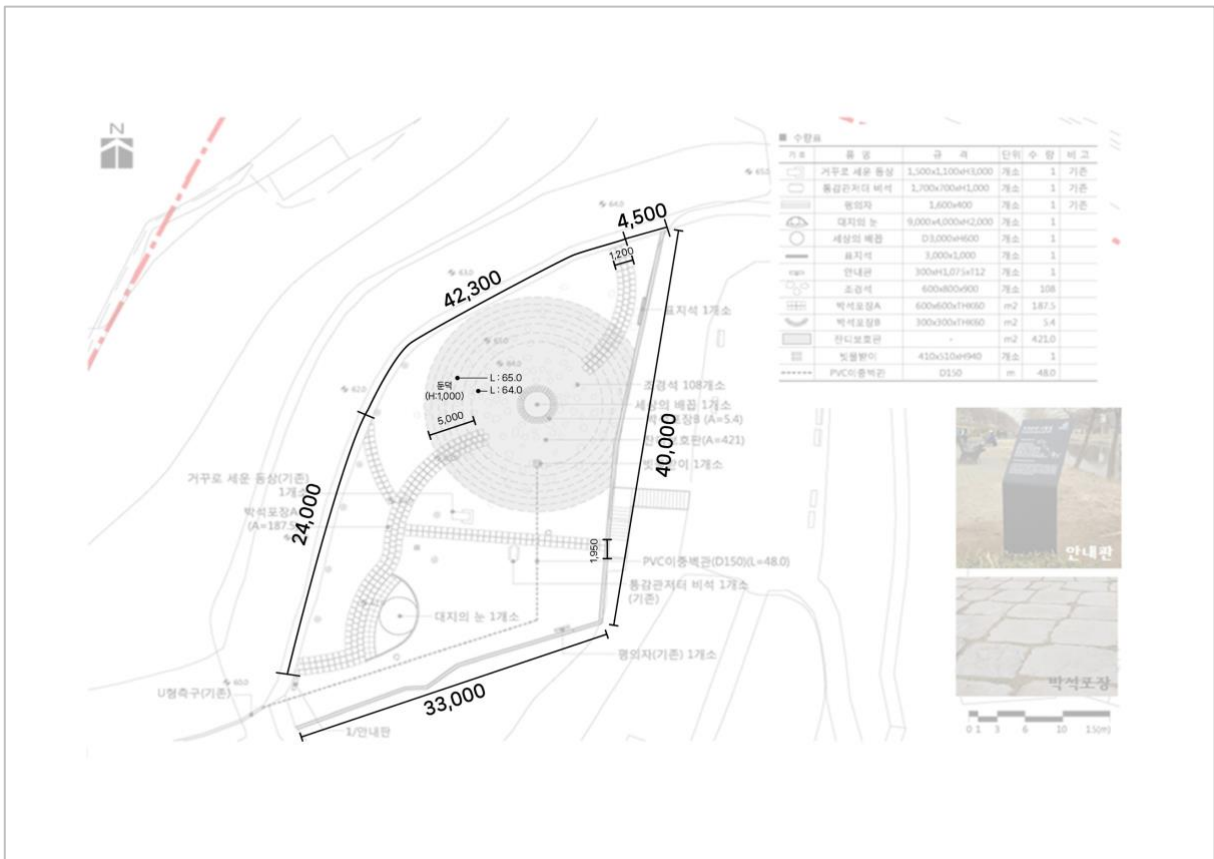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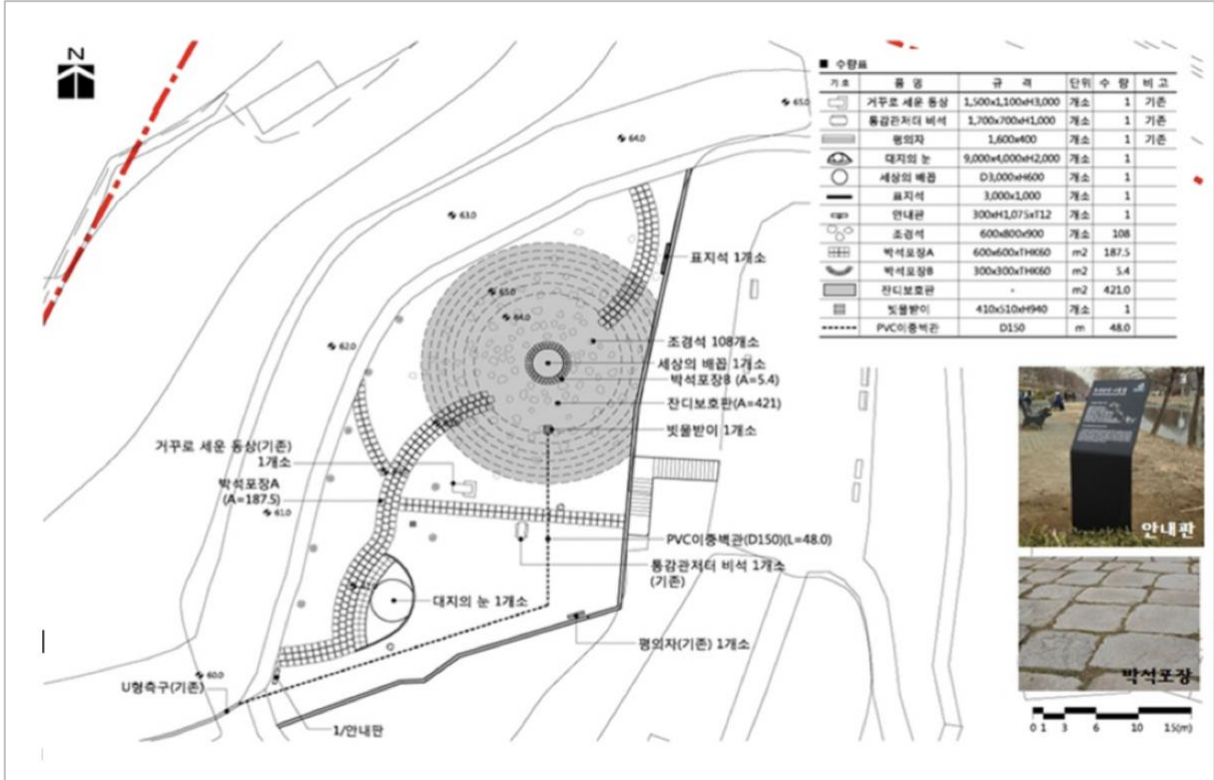
- 역사의 길 : 남산에는 역사를 되새기는 두 개의 '역사의 길'이 있다. 일제의 만행으로 얼룩졌던 곳을 돌아보는 '국치(國恥)길'과 인권 관련 장소들을 돌아보는 '인권(人權)길'이 기획되어 있다.

- ① 국치길 : 약 1.7km 의 국치길은, 남산예장공원-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한국통감관저 터-조선총독부 터-노기신사 터 -일제갑오역기념비 터-경성신사 터-한양공원비-조선신궁 터의 순서로 지난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길 구간이다.
- ② 인권의 길 : 약 930m 의 인권의 길은 옛 중앙정보부 6 국 터(서울시청 남산 제 2 청사 철거지) → 중앙정보부 사무동(현 서울소방재난본부) → 중앙정보부장 공관 → 중앙정보부 남산 본관(현 서울유스호텔) → 중앙정보부 5 국(현 서울시청 남산청사) 등을 돌아보는 구간이다.





1. 기억의 터 도면



2. 기억의 터 내 조형물 크기 (가로\*세로\*높이, mm)

		
<p>기부자 명단 표지석</p>	<p>통감관저터 비석</p>	<p>거꾸로 세운 동상</p>
<p>3500*300*185mm</p>	<p>1600*700*115mm</p>	<p>3500*300*1850mm</p>

3. 끌려가는 소녀 (김순덕 할머니의 그림 /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제공)



#### 4. 위안부 명단 (247명)

- 총 247명의 명단
- 최종작 한정 추후 공유

#### 5. 할머니 증언

##### - 이렇게 끌려갔다.

"내 나이 12 살. 언니와 나물을 뜯는데 차가 오더니. 모자 쓴 사람들이 차를 타라고 했다. 둘이 끌어안고 버텼더니 나를 발로 차버리고 언니 머리채를 쥐고 차에 태웠다. 내가 울어대니 나까지 주워 올려 한꺼번에 잡혀갔다. 대만에서 다른 차에 실린 언니와 헤어져 생사도 모른다." -심달연

"징용으로 끌려간 남편이 남양군도에서 죽었다고 소식이 왔다. 남편 죽은 보상금을 직접 가서 받아야 한단다. 어린 것들 둘을 친정에 맡기고 따라나섰더니 목단강 근처 군부대였다. 목단강! 어린 것들 던져두고 끌려온 목단강을 어찌 잊겠는가." -정윤희

"처녀를 잡아 간다기에 또래들과 20 여 일을 화장막에 숨어있었다. 동생이 '배고파 죽겠다. 누나가 '신민서사'외우니까 배급 좀 타주라.' 애원해 배급 타다 들켰다. 순사 한 명과 헌병 두 명이 항의하는 아버지를 총대로 내리쳐 이마에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열네 살의 나는 끌려갔다. 군인들과 함께 군항에 실려 남태평양 팔라우로' -강순애

"고등과 1 학년 16 살 때 담임선생의 권유로 근로정신대 1 기생으로 후지코시 비행기 공장에서 일했다. 배고프고 힘들어 도망치다 헌병에게 잡혀 강간당하고 부대로 넘겨졌다. 일본은 패전했지만 이미 임신이 됐고 귀국길은 막막했다. 귀향민 숙소에서 애기를 낳고 몇 달 후 고향으로 가니 어머니는 애 딸린 그 꼴로는 집에 못 들어온다고 부산으로 보냈다. 아이는 고아원에 맡기고 식당에서 일하며 일요일마다 만나러 갔다. 어느 날 내 아이의 옷을 다른 아이가 입고 있었다. 아이는 며칠 전 폐렴으로 죽었다. 아이의 주검도 보지 못했는데..." -강덕경

##### - 너무 험한 악몽이다.

"도망가자마자 붙들려 끌려들어 왔어. 순사가 때리다가 군인 시켜 또 때리지... 군화로 짓밟고 칼 차고 권총 차는 큰 허리띠로 때렸어. 온몸이 시퍼렇게 굴뚝이진 몸으로 다음날부터 또 군인을 받았어. 그놈들도 놀라서 달아나더라고." -이옥선

"몸이 혹사당해 약할 대로 약해진 여자들은 '나카이'들이 끌어내고 건강한 다른 여자로 바꿔 치웠다. 끌어낸 여자들은 골방에 가두고 밥도 제대로 안 줬다. 주사를 놔도 소용이 없으면 군인들이 트럭에 싣고 산으로 끌고 갔다. 죽은 여자는 산에 갖다 버리고 풀잎으로 겨우 가려줬다." -이귀분

"한 집에 한 명씩 일본 군수공장으로 가야 한다니 남의 집살이 하는 내가 차출됐다. 함흥역에서 일본 군인에게 넘겨져 20 여 명이 군용 열차로 길림역 도착. 너털거리는 트럭을 타고 군부대 속의

한 막사로 갔다. 장교방으로 끌려간 후 살려달라고 뿌리치는 나를 후려치고 옷을 찢었다. 얼마 후 찢기고 뜯긴 옷을 대중 두르고 눈물범벅인 채 끌려 나오는 내게, 먼저 온 언니가 말했다. '거봐라. 우리는 살아서는 못 나간다.' " -황금주

"총 끝으로 엉덩이를 세 대나 얻어맞고 고꾸라졌다. 폭 패인 엉덩이 상처는 굼아서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열은 펄펄 났다. 그래도 군인들을 받아야 했다. 그러니 살은 계속 썩어 들어갔다. 수술 후 3 일 만에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군인들이 달려들었다. 누구나 도망가고 싶었지만 우리 꼴을 보고 모두 포기했다." -윤두리

#### - 해방 후 귀국 귀향

"7 년째 끌려다니니 해방이란다. 기쁨보다 참담했다. 조국은 해방인데 몸은 망가지고 가진 것 없이 무슨 희망으로 돌아갈까. 새로운 불안과 굶주림에 떨며 해를 넘겼다. 이듬해 3 월, 고향에 가니 어머니는 세상을 떴고 아버지는 정신이상으로 떠돌이가 되셨단다." -박유년

"고향인 평양에서 남경으로 끌려가 이리저리 부대를 따라다녔다. 해방 소식 듣고 배타고 부산으로 들어오니 모두들 고향 찾아 간다는데 이북이 고향인 나만 홀로 남았다. 고향 가는 방법을 물었더니 술집에 나 몰래 선불 받고 팔아버렸다." -김은례

"일본이 패했으니 도망가자 했으나 모두 고름이 나고 부어있어 걷지 못해 혼자 떠나라 했다. 동료들과 눈물로 헤어져 그 넓은 병영의 문을 세 개나 거쳐 벗어났다. 거리에서 얻어먹고 웅크리고 자며 걷고 또 걸어 청량리에 도착하니 12 월 초였다." -황금주

#### - 반세기의 침묵을 깨다.

"처녀 공출을 피해 대학을 자퇴하고 강원도로 갔다. 해방 후 복학해 군수공장 정신대 차출이 위안 부라는 것을 알았다. 인간에 대한 분노와 누군가 이 사실을 밝힐 거라는 기다림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들만 그 참혹하고 억울한 한을 숨죽이며 혼자 안고 갈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단지 식민지 조선 여성이기 때문에 멍에를 진 것이다. 1973 년 센다가코의 '중군위안부'가 출간되면서 나는 조금씩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1980 년에는 배봉기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오끼나와 방문을 시작으로 피해자 목소리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10 년 만에 친구 이효재 교수의 도움으로 1990 년 11 월 16 일, 37 개 단체들이 참여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출범한다. 일본은 증거를 대라고 우릴 무시했다. 공개 증언자를 꼭 찾아야 했다."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초대 회장)

"다시 그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척 힘들지만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첫 증언을 하게 되었다. 차라리 속이 후련하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준 것은 이 문제를 위해 싸우라는 뜻이라 생각한다." -김학순 첫 증언자

#### - 수요시위·소녀상·나비기금·인권·평화운동

"나는 여기 저와 함께 있는 이 여성들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아픔을 이기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증언을 경청해 주는 여러분들의 응원도 저를 당당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용수

“우리가 다 죽고 난 후에도 소녀상은 이 자리에 남아 우리를 잊지 않게 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 일본 정부에게도 해결하라고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안점순

“지금도 세계 각국의 전쟁 속에서 고통 당하는 여성들을 위해 앞으로 김원옥과 제가 받게 될 배상금을 기부하고, 분쟁지역 피해 아동들을 지원하고 평화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저의 전 재산 5천만원을 나비기금에 기부합니다.” -김복동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 서고, 먼 나라까지 우리 문제를 알리러 갑니다. 내가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공개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원옥

## 6. 건립취지문

이 터는 민족반역자 이완용과 데라우찌 통감이 한일강제합병조약을 체결한 통감관저터이다.

이 땅에 식민시대가 시작된 국치의 현장이다.

침략전쟁중인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소녀들은 현장에서 학대 받아 죽고 병들면 버려졌다. 해방이 됐다 해도 만신창이의 몸으로 험난한 귀국길에서 스러져갔거나 오도가도 못한 채 낯선 타국에서 파편처럼 박혀 숨죽이며 살아야했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을 찾았다 해도 그들의 고통은 외면당하고 공동체는 그들을 배제했다.

해방된 조국에서도 이 삶은 정부도 목격자도 외면했고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반세기만의 침묵을 깨고 피해자들은 세상을 향해 진실을 외쳤다. 거리에서, 법정에서, 세계 각국의 인권무대에서... 반인륜적 전쟁범죄 피해자였지만 당당히 평화인권활동가로 활약하신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계승하자는 다짐으로 사회단체, 정계, 여성계, 학계, 문화계, 독립운동가후손 등이 모여, '기억의 터' 조성 국민모금을 시작했다.

그리고 19,755 명의 참여로 목표액이 달성되었고 서울시의 협조로 이 '기억의 터'를 연다.

'기억의 터'가 할머니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깃들도록 하는 배움의 장이자 사색의 터가 되길 기대한다.

2016년 8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추진위원회

7. 윤석남 작가의 그림 (손 그림 부분)

